

2007 광주·전남서 살아보니...

영암 해군 제3함대 부대원들

# “남도의 情과 음식맛에 반했죠”

## 작전해역 44%...해양 수호 '침병' 100여 세대 목포·영암으로 이주

우리나라 남방해역의 수호자인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원태호, 해사 32기)에게 2007년은 새로운 용비를 다지는 한해였다. 3함대사령부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옛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하 목방사) 자리로 터전을 옮겼다. 남방해역의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부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부대원 상당수는 수개월 전부터 영암에 와 부대 이전을 준비했다. 영의 거주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주변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다. 부대가 옮긴지 한달 반이 지난 현재 각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가족들의 동반 이주가 속속 늘고있다. 부대 인근인 목포나 영암으로 이사는 가족은 모두 100여세대에 이른다.

당초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사를 망설였으나 막상 전남에 살아보니 집값 싸고 교육여건 좋아 가족 동반 이주를 결정한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게된 부대원들은 주말과 휴일 남도 고유의 경관 구경과 별미 음식 먹는 재미로 '남도살이'의 참맛을 배워가고 있다.

임명수 정훈공보실장(소령)은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남도의 따뜻한 정에 반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흐뭇했다.

지역 주민들과의 동반자 관계도 끈끈하게 진행되고 있다. 3함대사

령부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목포시, 해남군과 '재해재난협력협정'을 맺었고, 초·중학생 초청 부대 개방행사나 주민 위안 잔치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불편한 점이 완전히 없어

진 것은 아니다. 제3함대사령부의 병력과 전투함 규모가 해군 작전해역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목방사의 옛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부대 편의시설은 한참 부족하다. 또 4천급 '양만촌함' 등

거대 전투함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 또한 열악하다.

원태호 해군 제3함대사령관은 “2008년 새해는 본청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등 남방해역 방어의 핵심 전력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며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해군이 되기 위해 전 부대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군 제3함대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지난 24일 부두에 정박 중인 '양만촌 함'(함정 최명환·해사 39기) 갑판 위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길이 135.4m·높이 14.2m·높이 14.2m인 '양만촌 함'은 승조원 239명이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31노트(57.5km)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고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폭행

## 나주 모 고등학교, 머리채 잡아당겨

### 전세금 300만원 못받아

### 찾기에 전셋집 불 질러

#### 도교육청 진상조사 나서

나주 모고등학교 여고생이 교실에서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폭력을 행사 해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가 나섰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내년 초 자체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해당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학생들에 대한 두발규제나 체벌, 퇴학이 없어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렵지만 상담연수 강화 등을 통해 학생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8시에 나주 모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 A양이 떠들어 담임교사 B씨가 주의를 주자 A양이 B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은 1학년 때도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해 자주 반항을 했고, 올해도 담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광산경찰은 28일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찾기에 불을 지른 조모(44·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7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자신의 전셋집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질러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씨는 “3년간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1천500만원 중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찾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비료 값 24% 폭등

## 농민들 “내년 농사 어찌라고”

### 정부보조금 폐지 부담 가중

연말을 틔며 비료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소 비료 한 포대(20kg)당 가격은 9천750원에서 1만2천400원으로, 복합비료는 9천850원에서 1만2천950원으로 오르는 등 주요 비료 값이 평균 24% 급등했다.

요소비료와 복합비료는 지난 2006년 1월 기준 8천900원, 9천원에서 올해 2월 9천150원(2.8%), 9천350원(3.8%)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9천750원(6.5%), 9천850원(5.3%)으로 올라 2년여 동안 무려 39.3%, 43.8%나 급등했다.

비료 값 상승 원인은 최근 국제 곡물가가 오르면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재배량이 늘면서 비료 소비량이 많아진 데다 비료에 들어가는 인광석, 요소,

유황 등의 원료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비료 원료의 80%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비료 구입 시 한 포당 25~30% 정도 지원해주던 정부보조금도 2005년부터 폐지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민 김모(52·해남군 황산면)씨는 “아직도 화학비료 의존도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비료값 급등과 정부보조금 폐지는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반발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올해 벼 수매가는 1등급 40kg 기준 한 포대당 4만8천450원으로 지난 2003년 5만7천원보다 무려 15%나 폭락했다”며 “비료 값마저 인상돼 농사를 지어봤자 인건비와 농자재 값을 빼고 나면 빚만이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영광 앞바다 타르 더 이상 발견 안돼

## 목포해경, 10kg 수거

목포해양경찰은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에 따라 형성된 기름 찌꺼기인 ‘타르 덩어리’ 10kg을 전남 영광군 안마도 해상에서 수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정 5척과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타르 덩어리가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정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타르 덩어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태안 해역에서 방재 작업 중 수거되지 않은 흡착포 등 기름 찌꺼기가 안마도 해안에서 일부 발견됐지만 경비정 2척을 투입해 제거했다”면서 “타르 덩어리 남하에 대비해 전직원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7일 낮 12시에 영광군 안마도 북

서쪽 14.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영광선적 6.67t급 연안자망 은진호 선장 김모(48)씨가 타르 덩어리를 발견, 목포해경 법선과출소에 신고해 해경이 이를째 정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여수 화물선 침몰

### 사고원인 수사 난항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여수해양경찰은 28일 선사인 ㈜NHL개발 관계자들과 생존 선원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유일한 생존자인 미안파인 선원으로부터 구조 당시 받아낸 진술 내용 외에 출항 직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이스턴 브라이트호가 출항 후 선체가 파도에 크게 흔들리면서 적재화물이 내부에서 좌우로 밀려다니는 ‘유동수 효과’로 화물이 한 쪽으로 몰리면서 중심을 잃고 순간적으로 파도에 부딪혀 침몰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니원침 (7396) 김장두



다들 권하하네! KCC

DS건설(주) KCC-철도, 철도, 도로, 대터널

KCC방오, 시스텔방오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철도, 철도, 도로, 대터널

실리콘 방수공, 철축공, 타이브

### 10살 연상 옛 애인 성폭행하고 음독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헤어친 여자 친구를 흥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이모(3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헤어친 여자 친구인 김모(여·41)씨의 집에 침입, 흥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0년 연상의 김씨를 만나 5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전날 김씨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이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둔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27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달미.

/이종행 기자 golee@

마지막 남은 소나무 고(古)목재로 만든 **다심마루** 공장직판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전통가구, 재현업체입니다.

전남 (주)다심마루

전화: (062) 385-9957

www.dasimmaru.com